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흥도 신작

두산아트센터 Space111

2024.11.26.(화) - 2024.12.14.(토)

평일 8시, 주말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작품 소개

2024년 초연하는 <꿈의 연극>은 신의 딸 수정이가 출소 후 지상을 배회하며 겪는 일들을 블랙코미디로 다룬 창작신작이다.

작품은 북유럽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꿈의 연극>, <미스 줄리> 등 원작희곡을 포스트모던하게 전복시킨다. 이번 극에서는 형식, 장르, 서사 자체를 패러디하며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교란시킨다.

인과관계를 벗어나고 시공간의 제약을 가로지름으로써 동시대 한국사회의 우스꽝스럽고 두려운 악몽을 종횡무진 파고든다. 작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고조된 남북 간 긴장감 속 한반도 정세를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케이팝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일상적 파시즘, 집단주의, 군사주의, 프로파간다 등을 키워드로 삼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와 정치를 패러디한다.

줄거리

도심열병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신의 딸 수정이는 지상을 배회한다.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을 찾아 가 보기도 하지만 출소 이후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러던 중 수정이는 다시금 예지 자매를 만난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여정, 의심스러운 조력자와 더불어 신의 딸은 자신의 길을 나서는데...

영웅서사의 갖은 난관들 끝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된 열정으로 이끌어줄 케이팝의 축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주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뮤직페스티벌. 거대한수막 아래 낮익은 구호가 펼쳐이는 동안 인근 상공에선 정체 모를 풍선들이 접근해오는 중인데...



작가노트

이홍도

두산아트센터 신작 <꿈의 연극>은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희곡이 2024년에 무대화된 작품입니다.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은 영어로 <Peace Music Festival (Through Overwhelming Strength)>이며, 서울에서의 초연에 이어 몇 달 뒤 뮌헨에서도 이러한 영문제목으로 낭독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에서 정확히 10년 전, 육군 공병대 폭파병으로 GOP 파견복무를 하던 저는 <꿈의 연극>이란 희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성 검토필이라는 글자의 보라색 도장이 첫 페이지에 찍혀 있는

<꿈의 연극>을 다시 펼치게 될 줄 그 당시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제목으로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을 올리게 될 줄도

몰랐고 말입니다.

<꿈의 연극 -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을 구상한 계기는 이러합니다: 2023년 10월, 저는 연극을 보고 극장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제75회 국군의 날 도심열병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방금 보고 나온 연극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연극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부청사 전면을 덮고 펼쳐지는 대형현수막에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를 발견했을 때, 저것이 동시대를 드러내는 장후적인 무언가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꿈의 연극 -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은 분명 제가 극작가로서 이제까지 다뤄왔던 것 가운데서도 가장 무모한 방식으로 가장 무모한 싸움을 시도하는 작품인 듯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 스스로도 많이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작품이 갖게 될 다양한 맥락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쓰지 않고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고 말았을 때, 저는 저질러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확신 갖기 불가능한 주제라면 그것이야말로 작업을 통해 발화해야 하는 주제란 게 제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랜 시간 너무나 공고하게 굳어진 나머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주제로 다룰 땐 전략과 전술 없인 승부를 걸 수가 없을 듯했습니다.

때문에 작가로서 저는 패러디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패러디는 대상과 싸우지도 대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 안에 투입함으로써 그 내부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패러디는 대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균열로써 전복의 가능성을 싹틔웁니다. 정면승부가 아니라 측면승부. 힘의 격차가 압도적이고 이길 가망이 없을 때, 패러디는 도리어 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거대서사가 힘을 잃고 미시서사만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사라졌던 적 없는 막대한 문제들에 맞서 무모한 싸움을 벌여야 할 때, 패러디는 그럼에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어도 극작가로서 저에겐 그렇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작전과 작정 가운데 한 줄, 또 한 줄의 대사가 모여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이라는 희곡은 점차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쓰는 동안은 속삭일 일이 많았습니다. 연극하는 작업자로서 한국사회에의 개인으로서 공지에 물리는 심경일 때가 여러 순간 있었습니다. 이려고 사는 것과 작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포기하고서 떠나버리고만 싶곤 하였는데... 모조록 그간에 수명은 약간 단축된 것 같지만 끝까지 붙잡고는 있어 작업이라도 한 편 남았으니 다행이다 스스로 위안 삼으려 합니다.

일단 써야했습니다. 잘 쓴 글이건 형편없는 글이건 지금 이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글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써야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적지 못하면 못 적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미숙하고 또 치기 어릴지라도, 나의 좁은 경험과 납작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어쨌거나 책상머리에서 쓴 글에 불과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활긋 보이는 것을 포착해내야 했을 따름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 자리에서 저는 수상소감으로 없는 속담을 하나 지어 냈습니다.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기 보다,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지금까지 잘 잡아먹히려 정신 꼭 붙들고 용을 써왔는데, 이제는 호랑이와 손 흔들며 헤어질 시간이 어느덧 되어갑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노랫소리라도 한 자락 들려올까요?

♫ 오래옛동안 / 사귀었던 / 저영든 내 / 친구우야 (여흥)

그러기는커녕,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 호랑이와 담판을 지어야 할 마지막 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저에게 17회차라는 공연기간의 의미입니다. 열일곱 번의 밤과 낮 동안 호랑이와 마주해야만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끝에만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안녕.) 수상소감의 말이 씨가 된 건지, 사는 게 호랑이 몰려가는 심경이었던 한 시절과도 이제 작별하려 합니다. (제발 좀 안녕.)

마침내 <꿈의 연극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은 제게 2년 5개월 만에 발표되는 신작입니다. 이 지난했던 과정에 그간 기여해주신 분들 향하여 두루 감사의 인사나마 전하는 것으로 부족한 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정은순 조다은

김홍국 나경민 박여름 성수연 우범진

그리고 해리 벤자민

이경성 Kayip(카이프) 송미선

박진아 박소영 문혜정

김효민 김미나 김상완

두산아트센터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

호랑이에 물려간 것은 저인데 애꿎은 이들이 징 치고 장구 치고 팽과리 치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연극이라는 일이 본래 그렇다지만 특히나 극작가라는 직군은 많은 이들에게 빛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에도 신세 많이 졌고 작업자 이홍도의 극작 인생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심사 청합니다.

또한 김요안 송미선 이경성 이정민 Kayip(카이프)

이경성 연출님께 그리고 카이프 작곡가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는 작년 연말부터 반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보며 희곡 개발 리서치를 이어갔습니다. 초고가 나오면서부터는 김요안 피디님과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노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송미선 그리고 이정민 피디님께서도 피드백으로 작품에 여러모로 기여해주신 터라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바이에른주 국립극장 레지덴츠테아터

초고를 한창 마무리하는 가운데 저는 뮌헨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극장 측 드라마터그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강을 가로지르는데,

딱 중간지점 정도 왔을 때 수석 드라마터그 알무트 바그너가

제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너희 나라에 오물풍선이란 걸 날리고 있다고. 숙소에 돌아와 한국의 언론기사들을 살펴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로컬 뉴스라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글로벌 이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영감이 되어 저는 며칠 뒤 초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란서의 어느 철학자

어쩌면 그는 쿼어 외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쿼어니스에 대해 발화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쿼어를 둘러싼 세상 거의 모든 것을 규명해나갈 때만이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하여 발화하기...)

이거 정말 할 일 태산의 막막한 작업 아닌가요?)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희곡 쓰기라는 영역 안에서 그 불란서 양반이 하던 걸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두산아트센터

그리고

이 지면에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사람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영감과 마감의 원천이셨기에...





연출노트

정은순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방에서 전 대통령의 생일을 탄신일로 기념하며 제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북한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그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내셔널리즘과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에서 벌어지는 극우화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K-POP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특히 백인 외국인)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자부심이 차오르지만 또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한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출가로서 이 모순 덩어리인 세상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꿈의 연극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뮤직페스티벌>은 그러한 시대 흐름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연극입니다. 이것이 정말 꿈이라면, 그저 한편의 연극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정은순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연극을 하는, 혹은 연극을 하지 않는 연극인이다. 연극은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그릇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를 더 고민하고 있다.

사회의 모순 그리고 너와 나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대위로 올리는 작업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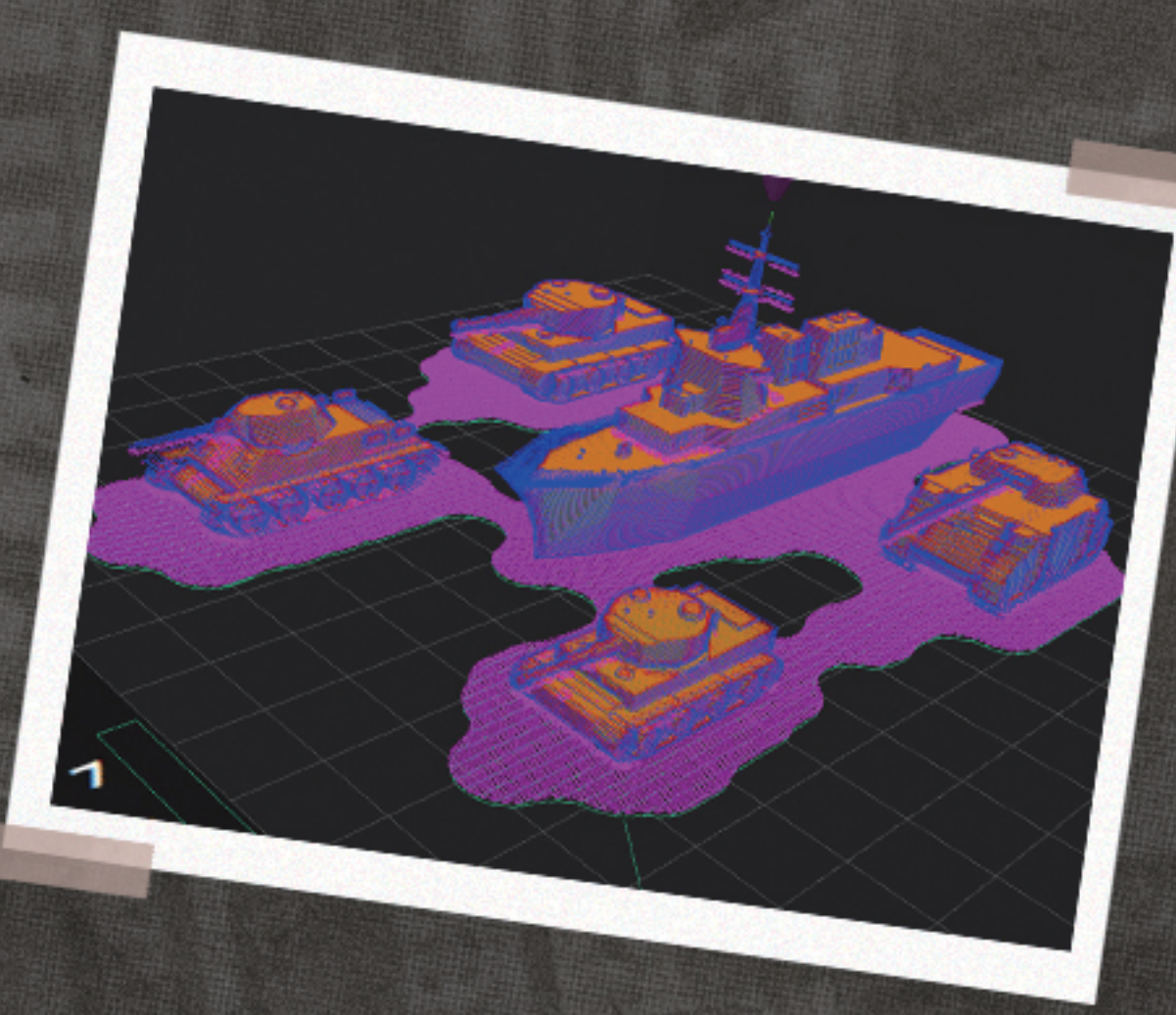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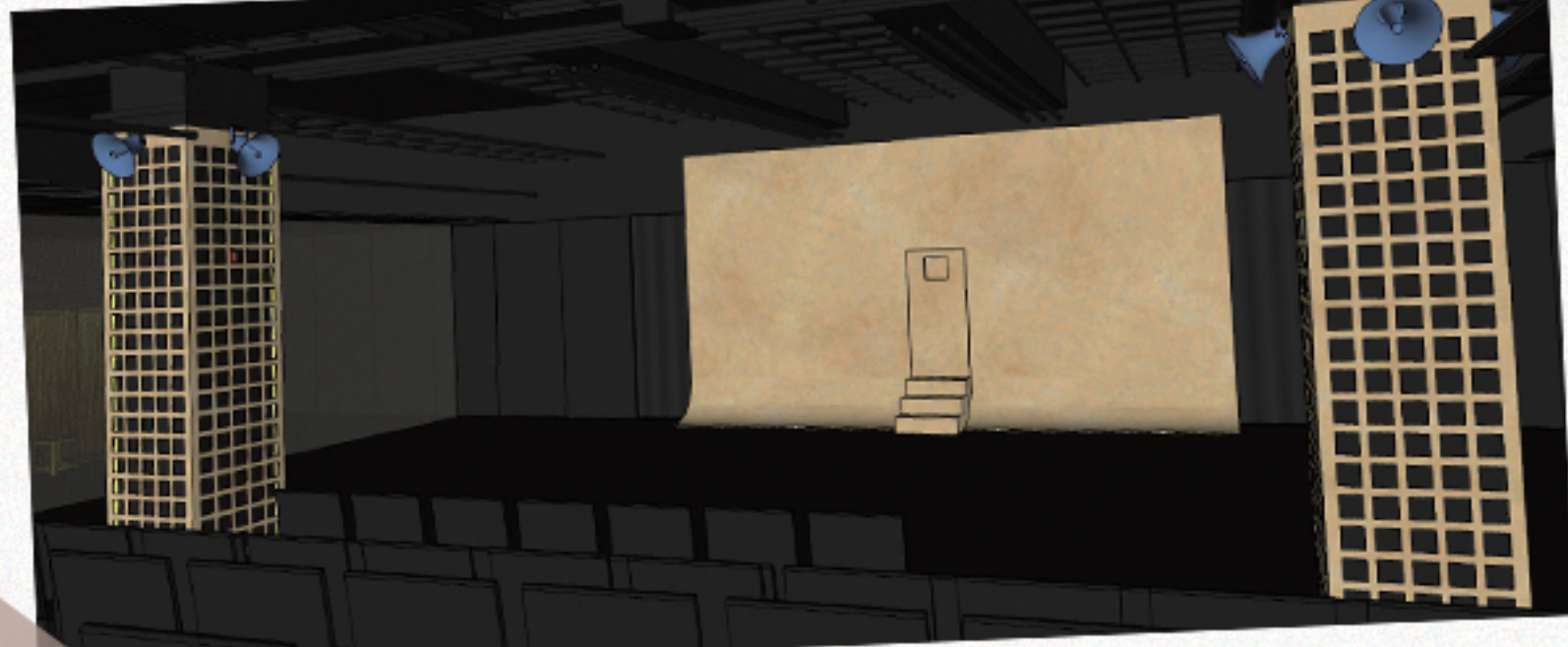
모순을 통해 벌어진 틈 사이에 관객들이 초대되어지길 희망한다.



무대 · 소품 디자인 노트

무대 안에서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장면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영상으로 송출하는 무대 밖 장면의 대비를 통해 정보가 넘쳐남과 동시에 한편으로 제한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를 비추고자 합니다.
진짜와 가짜, 사실과 장난의 경계를 뚜렷하게 짓지 않은 무대장치와 소품들로 극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극대화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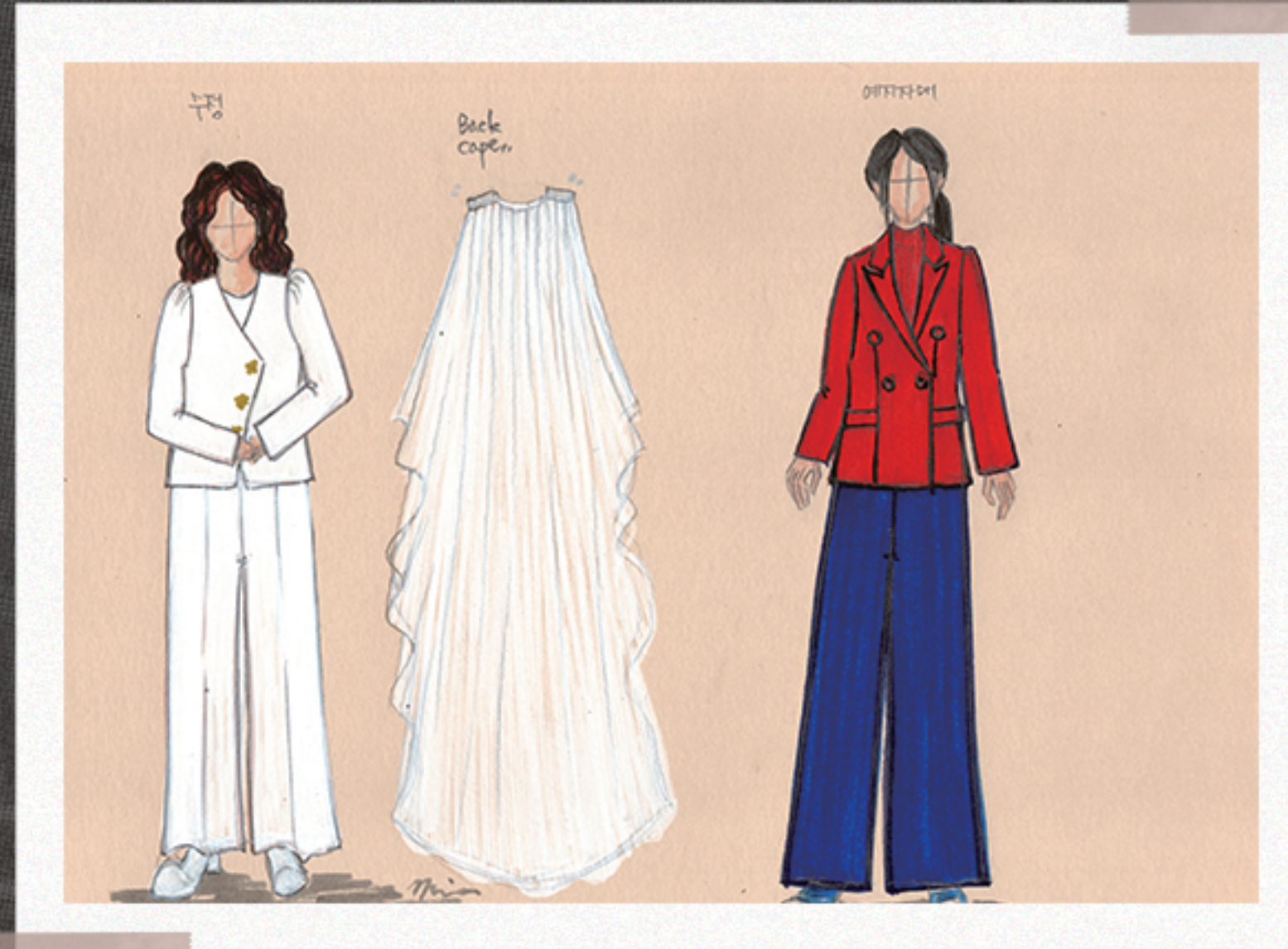
- 박소영



의상 디자인 노트

신의 딸, 순백의 수정공주를 호위하는 4명의 컬러풀 오합지졸 파워레인저들.

- 김미나





CAST

늑수그레한 남자 역



김홍국

영화 <낮과 밤은 서로에게> <사람과 고기>
<과기열차> <다른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외 수상
2020 서울독립영화제 독백 페스티벌 2등

축제 프로그래머, 극작가, 또다른 이야기 역



나경민

연극 <P와 함께 춤을> <섬이야기> <휴먼푸가> <오일(Oil)>
<비포애프터> <몇가지 방식의 대화들> 외

예지 자매 역



박여름

연극 <미스줄리> <나마유나스 되기> <그 여자의 소셜> 외
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 <사랑한다고 말해줘>
<슬기로운 의사생활> 외

수정이 역



성수연

연극 <P와 함께 춤을> <타임 스퀘어>
<러브 앤 인포메이션> <B BE BEE> <섬 이야기> 외
수상 2023년 제6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2019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외

한강종합자원, 수정의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역



우범진

연극 <당연한 바깥> <더 라스트 리턴> <조조와 양수>
<당신에게 닿는 길>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 외

스트린드베리 역



해리 벤자민

연극 <카사노바> <1919 필라델피아> 외
뮤지컬 <런던 레코드> 외



크리에이티브 VaQi

2008년 창단된 크리에이티브 VaQi(바키)는
집시들의 상징인 수레바퀴를 뜻한다.

“Veritas, Art, Question, Imagination”의
첫 글자를 딴 VaQi는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굴러가며 구석구석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어 중심의 연극을 넘어 오브제와 몸, 미디어와 설치 미술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합한 공연 예술을 선보인다.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크리에이티브 VaQi

제작진

작 | 이홍도

연출 | 정은순

조연출 | 조다은

출연 | 김홍국, 나경민, 박여름, 성수연, 우범진

특별출연 | 해리 벤자민

컴퍼니 어드바이저 | 이경성

희곡개발리서치 | 이홍도, 이경성, Kayip(카입)

프로듀서 | 송미선

무대·소품 디자인 | 박소영

무대·소품 어시스턴트 | 문혜정

무대 제작 | 에스테이지 (대표: 이윤중)

무대팀 | 김세진, 권오준, 김용선, 임대환, 임학균, 박호준, 이승윤

무대 작화 |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작화팀 | 박지원, 이재형, 최다정

사운드 | Kayip(카입)

음향감독 | 김서영

음향 오퍼레이터 | 진희경

음향 크루 | 박지광

무대감독 | 정우성

의상 디자인 | 김미나

조명 디자인 | 김호민

조명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 고민주, 최예원

조명 크루 | 김민지, 김주슬기, 김형표, 나홍선, 류동우, 박나경, 홍현화

영상 디자인 | 김상완

영상 오퍼레이터 | 김다영

영상 크루 | 김정호, 강정묵

촬영 크루 | 김서현, 최소영

자막 제작 | 조다은, 한지혜

자막 오퍼레이터 | 한지혜

티켓 매니저 | 양기쁨

그래픽 디자인 | 한상애

사진 및 영상촬영 | 백승진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 김요안

공연기획 |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 강소라 강소정 한나래 김예리 박지희

티켓 | 이희정 김지은

사무 | 유은우

예술사업2팀장 | 박찬중

전시기획 |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박성은

교육기획 | 정다운 이보라 박세연

기술총괄 | 신승욱

음향 | 류호성 전경미

조명 |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 |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감재원 권도이 권혁진

금다애 기나연 남연수 박찬호 서장훈 송해원

신아영 유진아 윤아진 이건구 이담빈 이민주 이승규

이재빈 이재이 이지민 이현지 전문희 정주원 지해원